

brilliant memories: artwork by 박선기

행복한 통학버스



브릴리언트 메모리즈 · 사랑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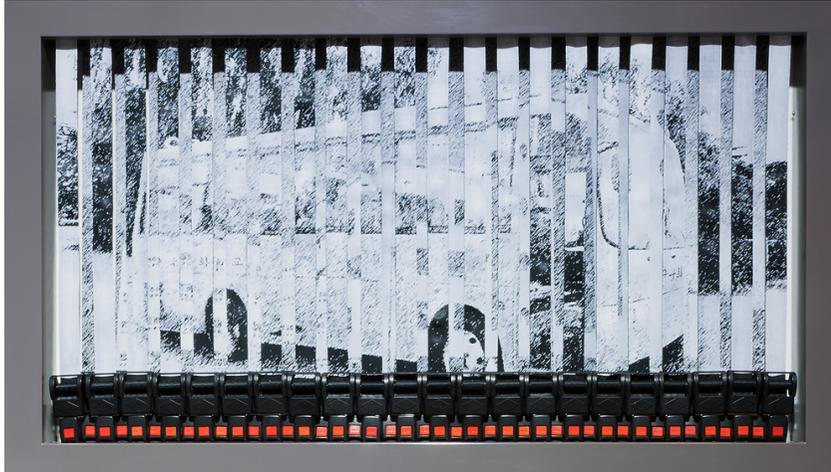
짐작컨대, 미술의 표현에 있어서 시지각적 경험과 세계 내 존재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꾸준히 지속해 온 박선기는 이번 브릴리언트 메모리즈 프로젝트를 통해 매우 흥미로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소리를 감각하지 못하는 청각 장애 아이들에게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말과 음악을 가르친다는 선생님의 사연은 우리가 예상하는 경험과 소통의 한계를 분명히 비껴서 있습니다. 38인승 통학버스 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자라나는 아이들을 소개한 음악 선생님의 사연 어디에서도, 그들이 겪는 세계와의 불통 내지는 단절감이라곤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신 스쿨버스를 타고 친구들과 세상을 배워나가는 아이들만의 고유한 신체적 경험과 서로 다름에 대한 사유가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건강한 정체성을 인식케 한 듯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쿨버스는 선생님의 표현대로 아이들을 행복한 세상과 이어주는 중요한 소통의 창구가 되어 왔습니다.

박선기는 스쿨버스 차창 너머로 보이는 그림자처럼 아이들의 모습을 실루엣으로 형상화해 부조 형식의 작품 <브릴리언트 메모리즈>를 제작했습니다. 평소 박선기가 공간을 탐구하던 방식에서 지각적, 인식적 태도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는 세 개의 레이어와 배경 조명을 통해 서로 중첩된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들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인식을 재고해보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검은 실루엣을 통해, 혹은 그들이 보여주는 고유한 몸동작을 통해 우리는 상황을 보다 상대적으로 인식하려 들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세계를 탐색하는 방식이자, 작가로서 박선기가 대상을 관찰하는 태도와도 매우 닮았습니다. 한편 38인승 스쿨버스 좌석 안전벨트를 연결해 하나의 스크린을 만들어 그 위에 아이들의 모습을 기록한 <사랑벨트>에는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염원하는 작가의 바램이 담겨져 있습니다. 글 · 안소연



[brilliant memories] 작가 박선기 인터뷰 & 메이킹

사연 소개



저는 한국구화학교의 음악 선생님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한국 구화학교는 청각 언어 및 지적, 자폐적 장애를 지닌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입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땐, 생소하고 어색한 분위기 탓에 매 순간 긴장하며 통학 버스에서 아이들의 등하교를 도왔습니다. 통학버스 구석구석에 매일매일 아이들과의 추억은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이 버스로 벌써 11살이 되었습니다. 좀 더 큰 통학 버스로 교체할 예정이라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합니다.

작가 박선기



작가 인터뷰

매일 아이들과 함께 학교로 달렸던 통학 버스를 상상하니 흐뭇해집니다. 버스는 학교까지 무사히 데려다주는 아이들의 ‘고마운 친구’가 아니었을까요?

아이들이 커서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고마운 친구’를 평생 기억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작품을 선사하려고 합니다.

프로필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실재와 환영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박선기는 숲을 매다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밀라노 국립미술원, 중앙대학교 조소학과 졸업했으며,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중동, 북미, 남미 등 국제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6년 제9회 김종영 조각상을 수상했습니다.